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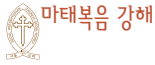
§ 2013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40, 례 19:18)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세대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co.kr



## 의심 많은 제자 도마

(마 10:2-4)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확신과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 1. 그의 이름과 가정 배경

도마의 또 다른 이름은 디두모였습니다. 도마는 아랍어 표기고, 디두모는 헬라어 표기로 이 두 이름은 똑같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 2. 그의 기질과 성격

도마의 성격은 비판적이며, 매우 꼼꼼하고, 섬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으면서 가끔은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모든 걸 분명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매사를 철저하게 알아야 마음이 놓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도마가 보였던 반응은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 3. 회의를 극복한 믿음의 단계

도마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회의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마침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셔 들입니다. 도마는 의심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몇 개의 단계를 거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무슨 일에도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하는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도마는 제자들의 모임에 늘 참석하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며 큰 감동과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 4. 그의 사역과 최후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페르시아를 거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이 던진 창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는 순교하면서 오직 한 마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 모두도 모든 의심을 극복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성령의 큰 감동으로 사도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Thomas, the Doubting Apostle

(Matt. 10:2-4)

Thomas the doubting Apostle who boldly threw away all of his doubt died a martyr. He preached the Gospel which ultimately showed his conviction and victory.

### 1. His name and family's background

Thomas had another name of Didymus. Thomas referred to Aramaic and Didymus to Greek which mean 'twins.'

### 2. His character and temperament

Thomas was pessimistic, very meticulous, and a little sensitive. Though he seemed to be inclined to aim for perfection, he often said random things. He always wanted to make everything clear. He had a character that wanted to know everything thoroughly.

When he heard that Jesus had resurrected, he could not believe until he saw the mark of the nail on Jesus hands and felt the hole in his ribs. Nevertheless, Jesus did not give up Thomas.

### 3. The stage of belief in which he overcame the doubt

Even though he showed skepticism, he received Jesus as his owner, King, and God. We could find that he went through several stages from his doubt to belief. The doubting Thomas first of all asked questions about everything. When Jesus rose from the dead and appeared to his disciples, Thomas was not there. This caused him not to believe Jesus' in resurrection. However, since then, because he continually took part in Jesus disciples' meeting, he could remove the distrust about the resurrection of Jesus. When we get togeth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Lord's spirit comes to us, and we deeply experience God's presence. In the meantime, our life will change by sensation and conviction.

### 4. His mission and the l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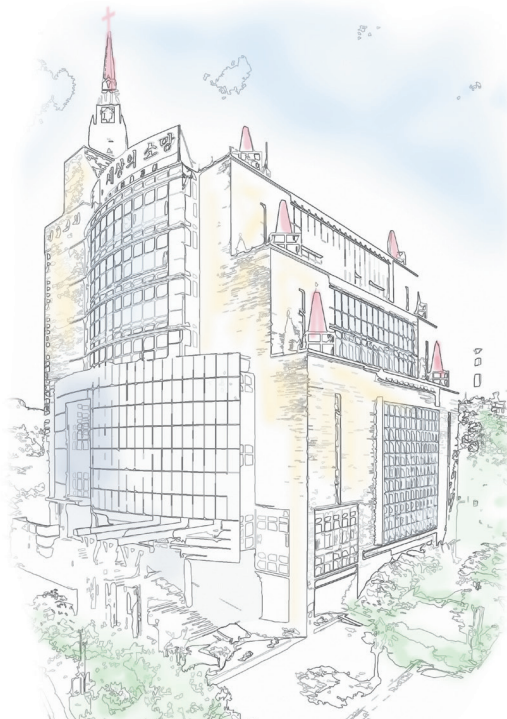
According to churches' history, Thomas preached the Gospel from Persia to West India, while he died a martyr by a spear thrown by a native Indian. He repeatedly said while dying, "I worship Jesus." "I worship Jesus."

My beloved Christians,

Even though he was very doubtful, Thomas met, experienced, worshipped Jesus, and he gladly gave his life for Jesus Christ. By overcoming the doubt, doing our best to gather, and being moved by a great spirit.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be workers just like the Apostle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 2013 사명자대회 7주간의 기도와 응답

- 10월 6일(주)~11월 24일(주) 50일간 -

매주 토요일 기도회: 10월12일~11월16일

VIP 초대 새생명축제: 11월 15일(금), 17일(주) 양일간

특별새벽기도회: 11월 18일(월)~11월 23일(토)

2013 사명자 대회가 10월 6일(주일)~11월 24일(주일) 50일간 열린다.

사명자대회는 교회설립 50일전부터 기도로 주님께 헌신과 사랑을 고백함을 사명으로 받았다. 해마다 서울교회는 교회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50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사명자대회를 가짐으로써 교회설립 기념일인 11월 넷째주일을 기쁨과 감사와 헌신의 계기로 삼고 있다. 서울교회는 국가와 민족,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며,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2013년 사명자대회를 시작한다.

이번 사명자대회는 "나 여호와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료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와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사 51:3) 말씀을 붙들고 진행 된다.



사명자 대회는 말씀, 기도, 전도하는 대회이다.

- ① 매일 말씀을 읽고
- ② 연속기도 : 50일간 각 교구, 다락방, 개인별 기도 신청 시간에 따라 자율적인 연속기도 운동을 전개한다.
- ③ 다니엘기도 : 모든 성도가 매일 오전10시, 오후 10시 2회 열렬히 기도한다.
- ④ 다락방기도 : 각각 VIP를 품고 다락방 공동으로 기도한다.
- ⑤ 5,000명의 VIP를 품고 기도하고 1,000명의 방명자를 품고 기도하며 300명의 결신자를 품고 기도한다.

또한 올해 VIP 초대 새생명축제는 여성중심 전도 집회로 11월 15일(금), 다음세대 전도축제로 11월 17일(주) 2회에 걸쳐 열린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전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2013 사명자대회 24시간 연속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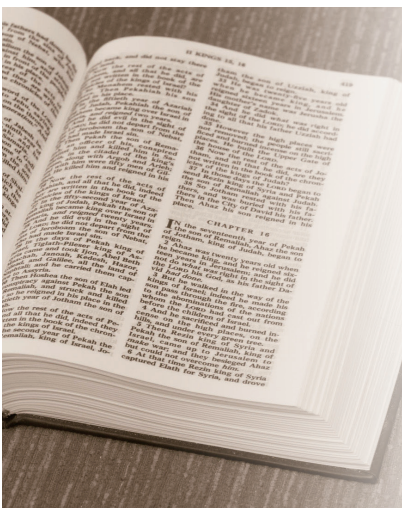
## 2013년 성경암송대회

예선 : 10월 13일(주) 각 교회학교별로 진행

본선 : 10월18일(금) 오후7시, 602호 / 야고보서 전장

2013년 성경암송대회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성경암송대회는 10월13일(주) 각 교회학교별 예선을 거쳐 10월18일(금) 오후 7시 602호에서 본선을 갖는다. 암송범위는 야고보서 1-5장(전장)이다.

글로 읽는 것은 15%가 기억에 남고, 시청각으로 보는 것은 25%가 그리고 손으로 쓴 것은 40%가 남고 암송한 것은 100%가 남는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에게 성경암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준다. 많은 성도들이 이번 성경암송대회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도록 기도한다.



##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은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05)

(문 104) 아합왕이 나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을 때 엘리야가 예언하기를 '개들이 나뭇의 피를 핇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몸의 피도 핇으리라'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가요?

(답) 열왕기 상 21:9에 나타난 엘리야의 예언은 왕상22:37-38에서 성취된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이미 죽으매 그의 시체를 떼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리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매 개들이 그의 피를 핇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던 곳이라" 개들이 그의 피를 핇은 것은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나뭇의 피를 핇은 곳에서 아합의 피를 핇았는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나뭇은 두 사람의 거짓증인들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므로 성읍 밖으로 끌려 나가서 돌로 쳐 죽임을 받았습니다.(왕상21:13) 그렇다면 그곳을 사마리아 성 밖에 있는 못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매우 난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 나뭇에게 이스르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뭇에게 말하여 이르되 포도원이 내 왕궁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왕상21:2-3)"고 한 것을 보아 아합왕이 장사된 사마리아의 못과 멀지 않은 거리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뭇을 죽인 자들이 나뭇을 이스르엘 성밖으로 그를 끌고 갔다면 아마도 그를 돌로 쳐죽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구약의 율법에는 예외적인 경우라 할 것입니다.

벌이나 징계를 하는 경우 죄를 범한 이가 있는 곳에서 같은 법에 집행되어야 하므로 그가 있는 곳에서 벌을 받았습다. 여리고 성에서 죄를 범한 야간을 여리고 성밖으로 끌고 나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아골 골짜기는 Wadi Qilt의 한 구역인데 구약시대 여리고로 알려진 Tell el-Sultan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르엘에 있는 못을 어떻게 사마리아의 못이라 불리었는지도 문제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아합의 아비 오므리가 건설한 사마리아의 이름을 따서 불렸을 것입니다.

당시 못들이 도시의 이름을 갖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못, 베데스다 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의 못은 하기궁전으로 인조호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르엘의 못으로도 알려진 것은 자연스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다음 주 계속)

2013 사명자대회를 시작하며

# 우리 모두 사명자 되어



오정수 장로  
(사명자대회 부장)

1991년 11월 24일 설립된 서울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정된 신앙 환경과 주어진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160여명의 십자가 군사들이 오직 주의 진리를 따라 허허벌판, 이스라엘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운 교회입니다.

세상의 허다한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아닌 세상의 유일한 교회로 50일간을 맨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마침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

늘까지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와 같은 서울교회 역사의 근간에는 사명자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울교회에 어떠한 언약을 주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서울교회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자로서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명자대회는 말씀운동입니다. 사명자대회는 기도운동입니다. 사명자대회는 전도운동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명자대회에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가 되어 마음껏 기도하고 전도하여 아름다운 새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대회

# 기도하는 사명자들!



김근준 집사  
(사명자대회 기도분과)

서울교회에는 두 개의 Living Legend(살아있는 전설)가 있습니다. 하나는 흥해작전이요 다른 하나는 사명자대회입니다. 흥해작전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흥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넉넉히 건너는 것이라면 사명자대회는 가나안 노정에 놓여 있는 험난한 모래사막을 기도와 사명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흥해가 기적적으로 갈라짐을 분명히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 중 하나가 가나안을 향한 노정에 꼭 가져야 할 기도와 사명을 상실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회는 사명자대회를 통하여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사명은 이웃을 향한 복음전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기도는 우리의 모든 일 특히 VIP초대 등 복음전도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사명자대회 24시간 연속기도는 아래 3가지를 기본으로 진행됩니다.

- 첫째는 기도의 Concert(화합)입니다. 개인기도 뿐만 아니라 다락방 또는 교회학교에서는

반별로 기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회는 여러 부서가 있으니 원하신다면 각 부서별로 시간을 정하여 참여함으로써 기도와 부서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둘째는 기도의 Harmony(조화)입니다. 올해는 교회의 공통적인 기도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과일을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긴급히 기도해야 할 내용 중에는 VIP를 비롯하여 성도들의 특별기도요청(공개)내용과 고3 수험생, 군복무자 및 건강회복을 위한 기도 등이 있습니다.
- 셋째는 교회의 Consideration(배려)입니다.

시간에 맞추어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특히 새벽 0시 이후에는 고요함과 추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작은 것이지만 기도하는 분들을 위하여 따뜻한 커피와 차를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새벽시간에 교회에 머물면서 기도하시는 분을 위하여 간단한 간식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이때쯤 1층 화이트 보드에는 이름들이 촘촘히 적혀 있음을 봅니다. 그 안에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열심과 기도의 열정이 담겨있습니다. 올해도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1층 24시간 기도실 앞에 있는 5.75㎡의 화이트 보드에 빼곡히 적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사명자기도

# 사명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며, 교만의 죄로 인한 타락을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으며,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으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으며,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사명자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밖에 없는 사명자들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지상대명령, 즉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명령에 입각하여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준엄한 유언을 남기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번 사명자대회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와 전도에 다시금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이 되었듯이 이번 사명자대회를 통해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사 박노철



터키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 이전보다 주를 더욱 사랑



윤영남 권사 (10교구)

2013년 서울교회 터키성지순례는 단장 박노철 담임목사님과 한상은 지도목사님, 부단장 신용식 장로님과 71명의 성도들이 동참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함께 했으며, 성경속의 성지를 걷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길 소망했다.

출발할 때, 박노철 담임목사님은 “은혜의 방패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리라(시편 5:12).” 기도하신 후, 우리는 모두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로 약속했다.

우리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동하면서 사도행전 8~11장을 읽으며 고난과 핍박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길위에서 새로운 감동을 받게 되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서 바울의 무물터를 보았다. 딤펀전1:12과 딤펀후1:12을 통해서 주신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님과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셨기에 우리는 특별한 울림으로 “아멘!”으로 화답했다.

괴레메 오픈 박물관에서 그 당시에 수도사들이 사용했던 성물들과 음식도 특별한 맛과 멋으로 우린 체험할 수 있었다. 그 옛날 수도사들이 깊은 동굴에서 동그랗게 둘러앉아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목격했다.

덥지도 차지도 않아 책망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페르가몬 왕조의 터전에서 성스런 도시를 뜻하는 히에라폴리스, 노천 온천, 그리고 에베소의 원형극장, 셀수스 도서관, 사도 요한의 무덤을 순례했다. 맹수들 앞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원형극장에서 우리는 강렬한 햇볕을 뒤로하며 말씀을 들었지만, 설교하신 담임목사님만 땀방울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며, 매순간마다 성도들을 섬기는 서번트리더십을 몸소 보여주셨다. 목사님의 얼굴이 유난히 검게 탄 이유와 복음 전파 현장의 모습을.

인내의 믿음을 칭찬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임하실 것을 강조하셨던 사데교회 및 소아시아 일곱교회를 돌아 본 체험담은 기억 속에 담아 다음 기회로 돌리고, 폴리갑 교회를 돌아 나오면서 전광해 선교사님이 계신 교회에서 우리는 이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자들로서 선교의 확장을 위해 역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렸다.

밤모섬을 왕복 6시간 남짓 배를 타면서 한 사람도 멀미를 안 했다는 것은 현지 가이드의 말로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도 할 만큼 은혜와 감사의 물결만 출렁거렸다. 조별 장기자랑과 즉석 찬양대의 역량이 맘껏 발휘된 탓도 있지만, 검푸른 파도를 보며 우러난 찬양의 덕분이라. 우리는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창문을 통해 빛을 보았고, 빛되어 성령의 감화로 오신 주님을 만난 사도 요한이 잡고 일어난 손잡이를 만져보면서 사명을 받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싶었다.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감사기도를 드릴 때, 곳곳마다 받은 감동의 은혜와 섬김의 축복을 가득 안고 돌아올 수 있음은 어찌 감사하지 않으랴. 순례의 길은 성경속의 지명에서 찬양과 함께 9박 10일, 가슴으로 밀려오는 추억의 아름다운 현장감과 생동감 있는 탐방의 기회였다. 이전보다 주를 더욱 사랑하기에,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사명자로서의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 찾아가세요~

세례,입교를 받고 증서를 찾아가지 않은 성도들은 607호에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김인아,김미숙,김동우,김주연,기태연,박광훈,박은주,박대서,송은정,이현주,이연희,이현정,이지은,이정애,오태연,윤성지,정상준,장형준,한정민,한정윤,최은영,홍경아

**〈입교자〉** 김범수,배진희,백지연,손신영,이정연,이경빈,이근원,유영진,한진우,한정우,한현지

## 서울교회 족구 선교단

제12회 서울 강남노회 남선교 연합회 족구대회에서 작년 이어 올해도 우승하였다.



###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7일(월) 한국신학회와 성결대학교공동학술대회에서 주제강의를 한다. 9일(수) 제567돌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한다. 11일(금), 12일(토) 한국국제기독교연합회 창립50주년전국대회에서 두차례 설교를 한다. 12일(토)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4회학술대회(한국개혁신학회 공동)에서 올해의 신학자상을 수여하고 개회예배 축도를 한다.

■ 전시회 : 1교구 김준자 집사, “김준자의 흠 이야기”, 종로구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5전시실, 10월9일(수)~13일(주일)

■ 주간식당봉사 : 엘리아선교회(10.6) 모세선교회(10.13)  
■ 금주의 식사 : 교회제공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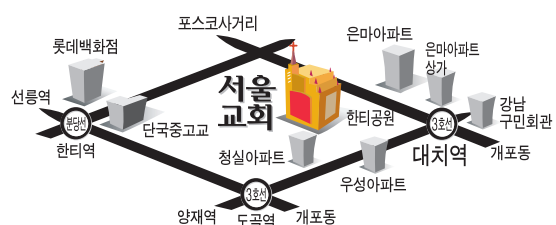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발대식과 함께 시작된 사명자대회를 통해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교우들 되도록
2. VIP조정 새생명축제를 위해 5000명의 VIP들이 작성이 되고, 1000명이 집회에 참석하며, 300명 이상이 결신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3. 터키성지순례를 마친 모든 순례자들이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본 당 II 층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